2016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뉴델리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Ⅰ. 인도 개황 1

Ⅱ. 정치동향 4

Ⅲ. 경제/무역 동향 5

Ⅳ. 한·인도 경제교류.. 10

Ⅴ. 인도 비즈니스 환경.. 15

Ⅵ. 참고자료 20

Ⅰ. 인도 개황

1. 국가 개요

국 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 치	서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 적	3,287,263㎢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 후	열대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 도	뉴델리 (New Delhi)
인 구	13억 2,680만 명 (World Meter, 2016)
주 요 도 시	New Delhi(1,868만 명), Mumbai(2,153만 명), Kolkata(501만 명), Chennai(981만 명), Bengaluru(1,157만 명)등
민 족	인도-아리안계 (72%), 드라비다계 (25%), 몽골계 및 기타 (3%)
언 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 교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 (0.8%), 자이나교(0.4%)
건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 부 형 태	내각책임제
국 가 원 수 (실 권 자)	o 국가 원수(대통령) : 프라납 무커지 (Shri Pranab Mukherjee) o 취임일 2012. 7. 25 (5년 임기)
	o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o 취임일: 2014. 5. 26 (5년 임기) o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원: World Meter,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2. 경제지표

G D P	USD 2조 2,887억 (‘16, IMF)
경제 성장률	7.5% (‘16, IMF)
1인당 GDP	US$ 1,747 (‘16, IMF)
실 업 률	4.9% (‘16, Trading Economics)
물가 상승률	5.44% (‘16.3, 인도중앙은행)
화폐 단위	Rupee, Paise
환 율	US$ 1= RS. 67.40 (‘16,5.20 기준, 인도 중앙은행)
외 채	US$ 4,802억 (‘16.5월 기준)
외환 보유고	US$ 3,816억 (‘16.5월 기준)
산업 구조	금융·부동산 및 기타(25.8%), 무역, 호텔, 교통, 통신(18.6%), 농업 및 어업(18.0%), 제조업(17.3%), 건설(8.3%), 기타 서비스(6.9%), 광업(2.8%), 전기·에너지(2.3%) (2014~15 회계연도)
교역 규모	o 인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아래 표 참조)
교 역 품	o 주요 수출품 - 보석류, 석유제품, 전기전자기기, 기타기계류,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섬유, 조선선박제품, 육류 등 o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보석류, 무선통신기기, 기타기계류,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식물성물질, 합비류, 자동차부품 등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월 누계)
수 출	290,451	309,369	318,217	319,307	26,467
수 입	489,608	441,380	473,936	380,170	28,510
무역수지	-199,157	-132,010	-155,720	-60,863	-2,043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 출처 : KITA, 인도통계청,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RBI, CMIE, CIA, IMF, Trading Economics

3. 한-인도 관계

체결협정

o 무역협정 (1974. 8)
o 문화협정 (1974. 8)
o 이중과세방지협정 (1985. 7)
o 관광협력협정 (1993. 9)
o 투자보장협정 (1996. 5)
o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 (2004. 10)
o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5. 8)
o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2005. 9)
o 세관협력협정 (2006. 2)
o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서명 (2009. 8 조인, 2010. 1 발효)
o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2010.10 체결, 2011.11 발효)
o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2011. 7)
o 한-인도 업무협력양해각서(MOU)체결 (2011. 11)
o 한-인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2011. 7체결, 2011. 10 발효)
o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2012. 3)
o 한-인도 항공협정 (2015.10)

교역규모 및 교역품

o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2	11,922	-5.8	6,921	-12.3	5,001
2013	11,376	-4.6	6,180	-10.7	5,196
2014	12,782	12.4	5,275	-14.7	7,507
2015	12,030	-5.9	4,241	-19.6	7,789
2016(4월 누계)	3,985	-2.4	1,316	-9.5	2,669

o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금형, 금은및백금, 종이제품 등

o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
- 석유제품, 알루미늄, 식물성물질, 정밀화학원료, 합금철선철및고철, 농약 및 의약품, 천연섬유사, 계측제어분석기, 곡실류, 기호식품 등

투자교류

o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1983년 ~ 2015년 9월 말)
- 신고기준 : 2,080건, 49억 6,396만 달러
- 투자기준 : 38억 1,897만 달러

o 주요 투자 업종 (투자금액 2015년 9월 누계기준)
- 제조업(85.48%), 도소매업(6.0%), 건설업(2.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

o 인도의 對한 투자 (신고기준)
- 1983~2015년 6월까지 : 5억 7,165만 달러(산업통상자원부)

교민

총 교민 수 11,000여 명 (2016.5)

* 출처 : 인도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Ⅱ. 정치 동향

□ 모디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

○ '14.5월 총선을 통해 출범된 나렌드라 **모디 신정부**는 **신속한 정책, 책임 있는 정부**를 모토로 **기존 UPA 정권과 차별화** 추진

* 최소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으로 부처 통폐합, 혁신 마인드 확산

○ 방산, 보험 등 **FDI한도 상향조정,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며, 주정부간 투자유치 경쟁을 유도

* 신규 투자/확대검토 : 폭스콘, GE, 아마존, 지멘스, 소프트뱅크, 스즈키, 혼다, 현대차 등
* FDI한도 확대 : 방산/보험 26→49%, 고속철/전용화물철도 100% 등

○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3대 경제개혁과제"**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중

* 야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로 개혁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지연
* 향후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상원 의석수 늘여 2019년 총선전까지 상원에서 다수당 확보 추진
* 3대 개혁과제 중 단일부가가치세제 도입은 금년내 가능 전망

< 모디 총리의 3대 경제개혁과제 >

◈ **(노동법 개정)** 40여개의 노동관련법을 4개(노동관계·임금·안전·복지)로 통합
- (노동관계) 300명 이하 작업장은 정부허가 없이 해고 허용 (종전 100인 이하)
- (임금) 견습생 채용시 2년간 봉급 50%를 정부가 지원, 퇴직금 인상 등
- (안전·복지) 출산휴가 16주(종전12주), 200명 이상 작업장 식당 의무 설치

◈ **(세법 개정)** 29개주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16~27%)를 단순화

◈ **(토지수용법 개정)** 정부나 기업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사업을 벌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70~80% 동의로 취득 가능, 사회영향평가 시행 조항 삭제

○ 인도의 이란 차바하(Chabahar) 항구개발에 5억불 투자로 파키스탄 견제

* 차바하 항구를 통하여 인도-이란-아프카니스탄 교역로 확보

Ⅲ. 경제 · 무역 동향

1. 인도 경제 동향

□ (경제성장) 세계 경제성장 엔진으로 부상

○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 6.9%에서 2016년 6.3%, 2017년에는 6.0%로 성장세가 꺾이는 반면, 인도는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과 강한 내수경기에 힘입어 2015년 7.3%로 중국을 앞서며 2016년 7.5%, 2017년에도 7.5%로 전망

< 인도 경제성장율 추이 (실질GDP 기준) >

(단위 : %)

-	'09	'10	'11	'12	'13	'14	'15	'16(f)	'17(f)
세계평균	-0.1	5.4	4.2	3.5	3.3	3.4	3.1	3.4	3.6
인도	8.5	10.3	6.6	5.6	6.6	7.2	7.3	7.5	7.5
중국	9.2	10.6	9.5	7.7	7.7	7.3	6.9	6.3	6.0

주 : f는 예측치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16)

○ 2015년 구매력평가(PPP)기준 GDP 규모는 인도가 7조 9,966억 달러를 기록하여 4조 8,431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규모 세계 3위로 등극

□ (내수시장) 두터운 중산층이 인도 내수 소비시장 견인

○ 인도 국가응용경제위원회(NCAER)에 따르면 인도 중산층(연간 7,555~37,777 달러 소득 구간)이 2002년 5,200만 가구에서 연평균 8.5% 증가하여 2016년 1억 3,500만 가구를 기록, 향후 인도 내수 소비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Strategy Analytics(SA)에 따르면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3년 5000만 대에서 2015년 1억 대를 돌파, 2017년에는 1억 5000만 대를 기록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럭셔리)** 의류, 악세서리, 예술품, 자동차와 같은 럭셔리시장도 2013년 85억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8% 성장하여 2016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동차)** 2015~16년 인도 자동차 판매율은 높은 할인율과 잇따르는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량이 200만대가 넘어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환율, 물가) 루피화, 글로벌 경제안전자산으로 부각

○ 브라질과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들이 유가 하락으로 경기침체임에도 불구, 인도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거대 내수 시장,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유

- 최근 저유가 현상은 해외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2014년 초 8%이던 물가상승률이 2016년 5월 5%대까지 감소하며 안정화

- 미 연준위의 금리인상과 중국발 경기둔화 리스크로 2015년 9월 브라질 헤알화가 6% 폭락하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터키 리라화 모두 3% 이상 가치 하락한 반면, 루피화만 예외적으로 1.4% 가치 상승

□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3년래 최고 기록

○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회계년도중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6.2% 증가한 319억 달러로 3년래 최고치 기록

- 이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세계은행의 사업환경평가 순위도 142위에서 130위로 이미 올라간 상태

-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시작된 이후 약 30여건의 주요국 기업 투자가 발표되고 분야도 자동차와 전자, 에너지, 건설, 식품가공 등 다양

2. 인도 무역 동향

< 인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월 누계)
수 출	220,408	301,483	290,451	309,369	318,217	319,307	26,467
수 입	350,029	462,403	489,608	441,380	473,936	380,170	28,510
무역수지	-129,621	-160,920	-199,157	-132,010	-155,720	-60,863	-2,043

출처 : KITA

□ (무역수지)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무역적자가 만성적으로 발생

○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인도는 산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중간재 및 원유 수입이 필수적인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갖고 있으며, 2015년 기준 609억 달러, 2016년 1월 누계기준으로는 2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

- 단,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수입액이 낮아져, 무역적자 감소세

○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금 수입량은 전년도와 비교 25% 늘어난 900t, 350억 USD 규모로 세계 1~2위를 차지하여 금 수입액만 무역적자의 57% 차지

- 이에 인도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금 예금 유치, 금 채권 발행, 금화 주조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

□ 수출입 현황

○ 2015년 기준 수출의 경우, 면화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1위, 귀금속과 광물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 UAE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홍콩, 섬유류를 수입하고 있는 영국이 5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22위를 기록

○ 2015년 기준 수입의 경우,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가 각각 2위, 4위, 8위를, 한국은 2014년 대비 한계단 상승한 6위 기록

< 2015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885	272.4	15.6	1	중국	61,544	-2.9	16.2
2	미국	40,350	-5.2	12.6	2	사우디아라비아	21,372	-23.8	5.6
3	UAE	30,270	-8.4	9.5	3	미국	20,459	-9.8	5.4
4	홍콩	12,154	-9.6	3.8	4	UAE	20,287	-30.5	5.3
5	영국	8,892	-8.1	2.8	5	인도네시아	13,854	-15.7	3.6
6	싱가포르	7,781	-19.1	2.4	**6**	**한국**	**13,077**	**-10.9**	**3.4**
7	호주	7,560	175.3	2.4	7	독일	11,826	-15.3	3.1
8	벨기에	7,499	26.9	2.3	8	이라크	11,313	-21.1	3.0
9	독일	7,025	-9.6	2.2	9	스위스	10,601	-8.3	2.8
10	사우디아라비아	6,969	-45.7	2.2	10	나이지리아	10,215	-29.5	2.7
22	**한국**	**3,606**	**-24.6**	**1.1**	12	일본	9,619	-10.5	2.5
전세계		319,307	0.3	100	전세계		380,170	-19.8	100

출처 : KITA

3. 인도 투자 동향

□ (투자유치) Make in India 정책추진

○ 인도정부는 2014년 9월부터 'Make In India' 정책 추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FDI 한도 상향,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등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

- (Make in India) 인도를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어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총 GDP의 25%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
- (FDI 한도) 방산/보험은 기존 26%에서 49%로, 고속철/전용화물철도는 민간에 100% 허용, 주택건설, 타운십, 쇼핑몰개발도 100% 상향조정
- (투자사례) Mercedes Benz, GM, Honda, Ford, Ericsson, Foxconn, Asus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공장 및 R&D센터 건립 추진

□ 2014-15년, 전년 대비 28% 투자 증가로 회복세

○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도 경제성장 부진으로 2012~13 회계연도 기준 대인도 FDI는 전년도 기준 37% 감소하였으나, 2013~14 회계연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2014~15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

○ 2014~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로의 FDI 유입 규모는 총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 건설, 통신, 컴퓨터(S/W, H/W) 산업 분야에 주로 FDI가 집중되는 경향

< 연도별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5.4-15.12)	누계 (00.4-15.12월 누계)
금액	31,364	25,606	21,376	34,833	21,825	24,299	30,933	29,443	279,641
전년비	28%	-18%	-17%	63%	-37%	11%	28%	-5%	-

출처 : 인도 상공부(DIPP)

□ 국가별 대인도 FDI 투자현황

○ 대인도 상위투자국은 모리셔스가 2000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누계기준으로 936억 달러를 투자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싱가포르 431억 달러, 영국 227억 달러, 일본 194억 달러 순. 한국은 17억 달러로 16위를 기록

- 모리셔스는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키프로스도 같은 이유로 대인도 FDI 투자액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됨

- 싱가포르는 2005년 6월 인도와의 CEPA협정 이후, 항구 및 공항 등 주로 인프라 건설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 제약, 정보통신기술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음. 제2차 인도-싱가포르 CEPA 협상이 진행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 투자 예상

< 국가별 대인도 FDI 투자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3-2014	2014-2015	2015-2016 (15.4-15.12)	2000-2015 (00.4-15.12월 누계)	총 유입액 대비 비중
1	모리셔스	4,859	9,030	6,105	93,660	34%
2	싱가포르	5,985	6,742	10,985	43,172	16%
3	영국	3,215	1,447	503	22,714	8%
4	일본	1,718	2,084	1,082	19,434	7%
5	미국	806	1,824	3,511	17,263	6%
6	네덜란드	2,270	3,436	2,147	16,818	6%
7	키프로스	557	598	400	8,444	3%
7	독일	1,038	1,125	790	8,434	3%
9	프랑스	305	635	368	4,881	2%
10	UAE	255	367	402	3,447	1%
총 FDI 유입액		24,299	30,931	29,443	278,076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출처 : 인도 상공부(DIPP)

Ⅳ. 한-인도 경제 교류

1. 한-인도 교역현황

□ 대인도 수출 최근 7년간(2008-2015) 연평균 4.3% 증가

○ 2016년 4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39억 달러를 기록,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 대상국

○ 인도의 취약한 제조기반,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한국 상품 수요 증가, 인도정부의 제조업 중시 정책기조 등을 고려, 대인도 수출은 **지속 증가 예상**

□ 2016년 기준 인도는 우리나라의 22위 수출 대상국

○ 우리나라의 22위 수입대상국인 인도의 수입액은 최근 7년간(2008-2015) 연평균 6.1% 감소하였으며, 2016년 4월 누계기준 대인도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세

< 한-인도 최근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8	8,977	36.0	6,581	42.3	2,396
2009	8,013	-10.7	4,142	-37.1	3,871
2010	11,435	42.7	5,674	37.0	5,761
2011	12,654	10.7	7,894	39.1	4,760
2012	11,922	-5.8	6,921	-12.3	5,001
2013	11,376	-4.6	6,180	-10.7	5,196
2014	12,782	12.4	5,275	-14.7	7,507
2015	12,030	-5.9	4,241	-19.6	7,789
2016(4월 누계)	3,985	-2.4	1,316	-9.5	2,669

출처 : KITA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알루미늄, 식물성 물질 등

- (수출) 현대자동차, 타타, 마힌드라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 소득증가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상황

- (수입)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한 알루미늄을 포함, 대부분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인도시장 중요성이 부각

< 우리나라의 對인도 10대 교역품목 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번	수출					수입				
	품목명	2014		2015년		품목명	2014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1,509	38.6	석유제품	1,812	-27.4	851	-53.0
2	철강판	1,531	25.9	1,474	-3.7	알루미늄	354	8.2	498	40.7
3	자동차부품	1,065	-14.9	1,177	10.6	식물성물질	386	-49.9	251	-35.0
4	합성수지	1,058	15.6	952	-10.1	정밀화학원료	201	9.1	198	-1.4
5	석유제품	739	20.0	471	-36.2	합금철선철및고철	331	-3.9	195	-41.1
6	기타석유화학제품	500	21.1	358	-28.3	농약및의약품	163	7.7	173	5.8
7	반도체	311	41.9	313	0.8	천연섬유사	153	-30.4	142	-7.1
8	금형	282	26.7	289	2.4	계측제어분석기	64	501.6	95	47.0
9	금은및백금	338	114.8	271	-19.8	곡실류	139	37.1	91	-34.2
10	종이제품	242	32.7	243	0.3	기호식품	64	30.2	85	32.0
	총계	12,782	12.4	12,030	-5.9	**총계**	5,275	-14.7	4,241	-19.6

주 : MTI 3단위 기준
출처 :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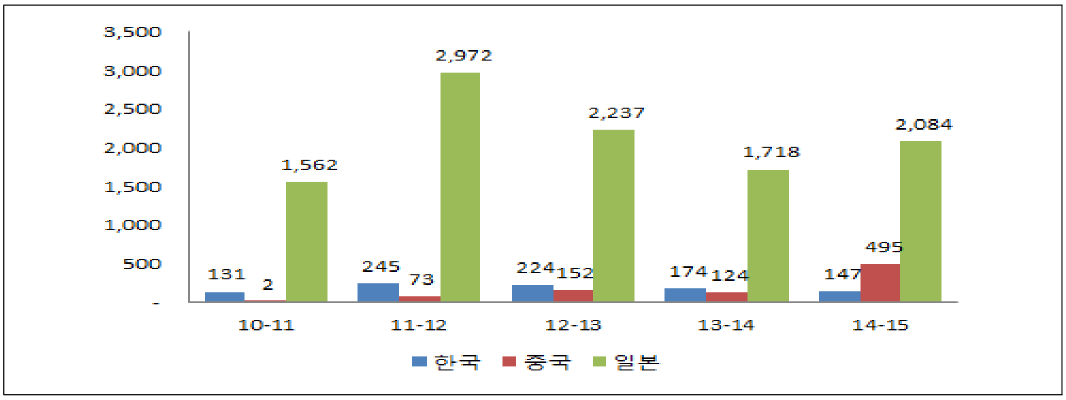
2. 한국의 대인도 투자현황

□ 대인도 투자액은 중국, 일본 대비 미미

○ 2014~15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의 한국은 1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한 반면, 중국의 대인도 투자액은 4억 9,500만 달러로 299% 증가, 일본의 대인도 투자액도 20억 8,400만 달러로 21.3% 증가

< 한・중・일의 對인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인도 상공부(DIPP)

○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기준,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총 224건, 3억1,426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해외투자건수 8,898건의 2.5%, 전체금액 271억8,011만 달러의 1.2%에 불과

< 연도별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5	76	33	114	120	92
2006	152	68	153	230	101
2007	206	85	538	356	506
2008	215	65	288	326	190
2009	130	45	343	217	242
2010	171	53	200	237	199
2011	173	58	650	220	452
2012	179	50	443	248	311
2013	163	37	384	197	343
2014	131	35	341	163	325
2015	224	52	271	258	314
총계('83-15년 누계)	2,137	724	5,013	3,048	3,90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85.5%가 제조업에 집중

○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 부문이 투자기준 투자 누적액(1983-2015) 33억4,093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 39억834만 달러의 85.5%를 차지

-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의료용 기기 등

○ 인도로 들어오는 FDI(2000.4-2015.12 누계기준)는 17%가 서비스 부문인 바 인도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인 점을 고려, 한국의 대인도 FDI 투자도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 확대 필요

<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 투자 통계 >

(단위: 건, 백만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법인수	신고 금액	송금 횟수	투자 금액
제조업	1,365	414	4,297	2,021	3,341
도매 및 소매업	258	92	311	382	235
건설업	95	53	103	126	9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4	69	12	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27	54	88	50
금융 및 보험업	3	2	55	3	44
운수업	51	24	26	67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	16	37	51	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7	22	16	79	13
교육 서비스업	52	14	14	66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	11	10	28	10
농업, 임업 및 어업	9	5	5	16	4
숙박 및 음식점업	54	28	7	73	4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	9	7	25	2
광업	1	0	1	0	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1	0	6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2	0	5	0
총계	**2,137**	**724**	**5,013**	**3,048**	**3,908**

주 : 1983년부터 2015년 12월 기간의 실제투자 누계기준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주로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벵갈루루에 투자집중

○ 민간 기업은 주로 LG전자 및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델리 인근(NCR)의 구르가온, 노이다 지역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 뭄바이 인근에 집중

○ 공공기관으로는 KOTRA 무역관이 델리, 첸나이, 뭄바이 및 벵갈루루 등 4개 지역에 소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가 뉴델리와 인근지역에 위치

< 인도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 등 NCR 지역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운송 금융 컨설팅 화학 도소매 의료 기타	33 31 27 22 8 9 9 5 5 15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등
첸나이 지역	172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등
뭄바이/푸네 지역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기타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등
벵갈루루 지역	31	연구개발 제조업 건설·공사업 도소매·유통 농림·수산업 기타	11 11 1 3 1 4	삼성연구소, LG소프트,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계	446			

출처 : 무역관 종합

Ⅴ. 인도 비즈니스 환경

1. 인도 경제의 특징

□ 인도 경제 강점

○ **(광활한 국토)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인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 활용도가 뛰어남

* 국토 면적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순

○ **(세계 2위 인구) 13억의 인구로 세계 총 인구의 17.8%**를 차지,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보유 ('25년 인구 수는 중국 추월 예상)

○ **(과학기술)**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IT, 수리/물리, 우주항공, 제약** 등 BT 산업 활성화

○ **(서비스·지식)**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면 인도는 **글로벌 서비스·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

○ **(안정적 경제·정치)** '16.6월 기준 3,51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안정된 은행 시스템을 보유한 **견실한 경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느리지만 부작용이 적은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

○ **(투자 관심국으로 부상)** '1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310억불로 세계 1위, 중국은 280억불로 2위(파이낸셜타임즈), '15년 총 393억불 유치

○ **(경제성장 본격화)**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본격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6년 인도시장 중점 트렌드

○ **세계 제조산업 거점**으로 점차 부상, **친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인도 신정부 기업 규제완화, 제조산업 육성정책 적극 추진중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州間기업환경개선 경쟁 치열(세계공장 가능성)

* 간접세제 개혁(통일물품서비스세 도입), 노동법, 토지취득법 완화 추진

○ **중산층 확산, 소매유통 혁명 진행 중**

- 인도 **중산층 3.4억명** (가구당 월 500불 이상 지출) 시장저변 확산

- 인도 온라인쇼핑 시장 연평균 35% 성장 ('15년 40억불 → **'20년 470억불 전망**)

○ **도시화** 진행속에 **인프라 개선, 인접국간 연계 인프라 발주증가**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인도),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등

- **벵골만 연안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네팔 등)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거래, 국경무역 촉진 등

○ **경제활동인구 증가**, 탄탄한 **내수시장** 등 경제성장 지속

- 세계경제 침체 속에도 서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도성장 시현

<GDP 성장률 전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f)	2017년(f)
인도	5.0	6.8	7.2	7.3	7.4	7.5
파키스탄	3.8	3.6	4.0	4.2	4.5	4.5
방글라데시	6.2	6.0	6.2	6.5	6.7	7.0
스리랑카	6.3	7.3	7.4	6.5	6.5	6.5

*(f): 예측치, 자료: IMF

□ 인도 경제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및 사회불안) 인도-파키스탄간 뿌리깊은 불신**, 양국간 4차례 전쟁으로 역내 경제협력체제 확립 애로

- **계층간 소득불평등** 심화, **빈곤층의 교육기회 제약**으로 국가통합 저해 및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열악한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환경)** 인도 등 서남아 정주여건 및 사업환경은 전세계에서 바닥권

- **140개 도시 생활여건** 중 방글라데시 다카 등과 함께 **하위권 포진**

* EIU 생활여건 조사('15): 다카 139위, 카라치 134위, 콜롬보 128위, 뉴델리 110위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순위 : '15년 142위, **'16년 130위** (12단계 상승)

* **(개선)** 창업, 세금납부, 전기설치분야 개선 **(최하위권)** 계약 강제이행, 부동산등록, 상사분쟁해결 **(최상위권)** 소액주주 보호

- **세계보건기구('14년)** : 뉴델리, 세계 160개도시 중 공해 가장 심각

○ **(열악한 인프라) 전력부족**에 따른 수시 정전, **낮은 공업용수** 품질, **도로미비, 공항·항만 부족** 등 인프라 미흡으로 추가비용 과다 발생

○ **(부정부패)** 인도는 '14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175개국중 85위**에 그치는 등 부패가 심하고 행정절차가 불투명함

- BRICs국가 국가청렴도 지수 : 브라질(69위), 중국(100위), 러시아(136위)

○ **(빈곤층)** 전체 인구의 20%인 **3억명이 기아선(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이며, 이들 계층의 증가율이 매년 2%가 넘어 경제성장 및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사회갈등) 카스트 제도**가 헌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생활에 여전히 상존**, 힌두-무슬림간 갈등 등 내재된 종교적 갈등이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우발적 사태)** '08년 뭄바이, '11년 델리 고등법원, '13.10월 인도 북동부 인도국민당(BJP) 유세장 등 **각종 테러사건** 잇따라 발생

- 파키스탄과의 **정치적 불안**, 각종 **질병** 창궐, 연이어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감과 환경적 위협이 상존

□ 인도 시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도인

· 미국 과학자의 12%, NASA 과학자 36%가 인도인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 (세계 경쟁력 보고서)
· 글로벌 IT기업 직원 중 다수가 인도인 : MS(34%), IBM(28%), Intel(17%), Xerox(13%)
· 미국 의사의 38%, 영국의사의 1/3이상이 인도인
· Hotmail 창시자(Sabeer Bhatia), Sun Microsystem 공동 설립자(Vinod Khosla), 펜티엄 칩 설계자(Vinod Dham)

○ **(휴대폰)** '14년 휴대폰 가입자 수는 9억명을 돌파, '16년 10억명 돌파 예상

- 인도 중산층 소비확대, 지방 등 미개척 지역 고객 잠재력, 4G 서비스 상용화 등

○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對인도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인도 + 중동 및 서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제조 허브 구축 ('15년 320만대 생산)

○ **(섬 유) 세계 면화의 12%를 생산**하고 있는 인도는 원부자재 용이성, 풍부한 저임노동력, 방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섬유강국으로 부상

○ **(인프라)**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5년간 1조불 규모 투자** 예정

- 8% 수준의 과거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0%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2. 주요 시장 특성 및 협상 유의점

□ 가격협상

○ 인도시장은 가격이 구매 결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며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도 먼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가격제시 할 때 처음에는 10% 높은 가격을 제시, 협상을 하면서 7%, 3%로 할인을 해나가는 것이 협상방식에 유리

○ 인도 바이어들은 인도 시장이 가격시장이라며 중국 제품과 한국제품의 가격을 비교

- 따라서 중국제품과의 품질 비교표를 준비하여, 제품수명이 중국산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식으로 협상 필요

□ 결제조건

○ 인도바이어의 경우 상당기간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다가도 외상거래로 전환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편

- 신용장(L/C) 없는 D/A나 D/P 조건 거래를 요청할 경우, L/C 조건거래를 요구하되 조속한 계약을 위해 인도 바이어 의도대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

○ 인도바이어가 L/C 개설시 인도 국책은행 또는 대형 민영은행을 개설은행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신규 L/C 개설시 담보제공 문제로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하려 할 것이나, 불안정한 전산시스템 또는 거래절차숙지 미숙 등의 문제로 대금결제 지연 발생 가능성 농후

□ 현지 에이전트 관리

○ 안정성 있는 인도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업체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사 이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업체 신용조사서비스와 같은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 현지 에이전트에게 장기 독점권을 주자마자,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한국제품의 인도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경쟁국가 제품을 취급, 다른 에이전트가 한국제품을 들여올 시 계약위반 클레임 거는 사례 다수 발생

3. 기타 비즈니스 요령

□ 약속잡기

○ 근무시간은 통상 09:30~17: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3:00~14:00 사이에 이루어짐
- 인도 경영층은 11:00~16:00에 미팅하는 것을 선호
- 단, 정작 당사자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에 유의

□ 이름 및 호칭

○ 상대방을 부를 때 Professor, Doctor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름은 주로 성을 사용하며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름

○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는 존칭을 사용

□ 대화

○ 인도인들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국가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이므로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거부감 없는 편

○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정지역 한정된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

□ 선물

○ 선물포장은 흰색, 검정색을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대 받았을 경우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되 경조사 발생시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홀수로 끝나야 함

□ 복장

○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적

○ 여성의 경우 전통의상이나 바지정장을 주로 입고, 지역별로 상이한 무늬 및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Ⅵ. 참고자료

1. 비자발급 정보

☐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인도 비자를 구비하여야 함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

☐ 이와 관련, 온라인 도착비자(E-visa) 또는 정식 인도비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부여받아 방문하여야 함

비자종류	주요내용	
온라인 도착비자	체류기간	- 입국일을 포함하여 30일 체류가능 (관광, 휴양, 친지 방문, 단기 치료, 단기 비즈니스 상담등의 목적)
	신청방법	-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방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인 신청시 불편함이 많으므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활용을 권고
	유의사항	- 연간 2회 사용 제한 (3회부터는 정식 비자가 요구됨) - 인도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전에 신청하고, 승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기간연장 및 비자종류 변경불가 - Ahmedabad, Amritsar, Bengaluru, Chennai, Cochin, Delhi, Gaya, Goa, Hyderabad, Jaipur, Kolkata, Lucknow, Mumbai, Tiruchirapalli, Trivandrum, Varanasi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 - 귀국(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필요 (현금, 신용카드 지불가능) - 수수료: 미화 60불(은행간 수수료 제외), 온라인 신청시 신용카드로 납부
정식 인도비자	체류기간	보통 90일 체류 가능
	신청방법	- 제 1단계 : http://www.vfsglobal.com/india/southkorea 방문, 구비서류 확인 및 온라인상에서 신청서 작성 - 제 2단계 : 온라인 신청서를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처에 제출 신청처 : VFS Global 한국지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85(구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9-2, 신원플라자빌딩 3층) - 전화 : 070-4044-1750 * 처리기간 : 신청 후 약 1주일(접수 후 면담일 결정, 면담 후 당일 또는 익일 수령 가능) - 제 3단계 : 수수료 납부

2.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이나 뉴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 여름, 겨울 간 기온 차가 심해 겨울에 북부 지방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두툼한 옷 준비가 필수적이며, 그 외 계절의 경우도 태양빛이 강렬하므로 반팔 외에 긴 팔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의 한여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 5~7월은 최대 50C°(평균 35~45C°)까지 올라가며, 동절기(12월말부터 2월까지) 기간에는 기온이 새벽시간 최저 기온 0~3C° 이하로 내려감

3. 기타 주의사항

□ 치안

○ 인도의 치안 여건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외국인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슈미르, 북동부 2~3개주, 안다만 제도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요구 되며 이들 지역은 테러에 의한 집단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교통

○ 보행 중 지나가는 택시처럼 잡아타는 도구로는 오토릭샤로 오토바이 엔진에 뒤의 승객 칸(통상 2~3인 자리)을 붙인 3륜 형태가 대부분

○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연결 노선이 불편하고 언어 소통, 추행 등 문제가 있어 힌디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위생

○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병, 말라리아 등이 흔히 발병하고 있음. 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도에 온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자칫 현지 음식으로 인한 배탈을 앓게 되며, 물은 미네랄 워터 생수병을 사서 마시는 것을 권고

□ 인근 종합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
Apollo Hospital	Sa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110076	+91-11-2692 5858 / 5801
AIIMS Centre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91-11-2658-8500 / 8700
Max Hospital	2, Press Enclave Road, Saket New Delhi, Delhi 110017	+91-11-2651-5050
긴급전화 (경찰) 100 (화재신고) 101 (앰뷸런스) 102 (전화번호 안내) 197 (관광청 긴급 헬프 라인) +91-11-2336-5358		

4. 주요 관광지

□ 뉴델리 지역

○ India Gate(인디아 게이트)

- Rajpath(라즈파트, 왕의 길이라는 뜻으로 파리의 샹제리제와 같이 넓은 중앙도로) 동쪽 끝에 있는 높이 42m의 승리의 아치.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9만여 인도 병사들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북서부 전선작전, 1919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9만여 명의 인도 병사들을 위한 위령탑으로, 벽에는 1만 여 명의 전몰 장병의 이름이 소속별로 새겨져 있음

- Rajpath를 사이에 둔 서쪽의 끝에는 영국 건축가 루텐스경에 의해 설계되어 1929년에 완공된 Rashtrapati Bhavan(라스트라빠띠 바완,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음. 대통령궁에서 보아 오른쪽(South Block)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왼쪽(North Block)에는 재무부와 내무부가 있으며, 내무부 뒤의 콜로세움을 닮은 건물은 의회 건물

- 이곳에서 약 1 Km 떨어진 곳에는 뉴델리와 올드델리 접점이자 델리의 중앙인 Connaught Place(코넛 플레이스)가 위치. 영국왕 조지5세의 형제인 코너트공(Dukeof Connaught)의 인도방문을 기념하여 영국이 세운 Plaza로, 잘 구획된 도로와 각종 관공서, 상가 등이 밀집해 있음

○ National Museum(국립박물관)

- 인도 역사를 소개하는 유물들을 다수 소장. 인도 역사의 기원인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마우리아, 굽타, 간다라 문명 등 인도의 중세와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10:00～17:00, 월요일 휴관)

○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국립현대미술관)

- 2009년 1월 19일 정식으로 개관하여 인도 현대미술 최고의 작품들을 다양한 전시와 주제를 통해 소개하고 있음. 출판국이 따로 있어 지금까지 300권이 넘는 작품을 발간하였으며 우리나라 이세득 작가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음

○ Qutab Minar(꾸뜹 미나르)

- 꾸뜹 미나르는 높이가 거의 73m에 이르며 1192-1368 년간에 건립한 거대한 탑으로, 밑부분 지름은 15m나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꼭대기의 지름은 2.5m에 지나지 않음. 이 탑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다섯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오늘날 이 탑은 수직선에서 60cm쯤 기울어져 있으며 예전에는 탑 속으로 올라가 발코니에서 주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1981년 단체 관람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후에 폐쇄

- 한편 Iron Pillar(철기둥)는 와툽 이슬람 마스지드 마당에 박혀 있는 높이 7.2m의 쇠기둥. 쇠기둥에 새겨진 6줄의 산스크리트 문자에 의하면 이 쇠기둥은 원래 비하르에 있는 비슈누(Vishnu)사원 마당에 굽타 왕조의 찬드라굽타(Chandragupta) 2세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 됨. 4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도가 100%에 가까운 이 쇠기둥은 고대 주조기술의 신비로움을 보여줌(일출에서 일몰까지)

○ Humayun's Tomb(후마윤 무덤)

-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묘단의 벽에는 아치형의 작은 입구들이 많은데, 입구는 무굴제국의 왕실 가족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방들로 통해 있음. 본 묘는 희고 검은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상감한 붉은 사암으로 지어지고 중앙의 팔각 석실에는 후마윤 묘석이 들어 있음

- 지붕 위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 돔은 완전한 반구형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13세기부터 쓰이던 양식이었지만 인도에서는 아주 초기의 것임. 지붕 위 중앙돔의 양편에 있는 캐트리스들은 돔의 곡선과 나머지 구조물의 각을 융화하고 있음(일출에서 일몰까지)

○ Ambience Mall(구르가온 위치) 식당 정보

	식당명	Johnny Rockets
	종류	패스트 푸드
	가격	2인 기준 약 1,200 INR
	메뉴	각종 햄버거, 감자튀김, 샐러드 류
	식당명	Jamie’s Pizzeria
	종류	피자 레스토랑
	가격	2인 기준 약 1,500 INR
	메뉴	치킨 Fajita, 베이컨 버거, 클래식 나초, 피자 등
	식당명	KFC
	종류	패스트 푸드
	가격	2인 기준 약 500 INR
	메뉴	치킨 류 패스트푸드
	식당명	Asia Seven
	종류	아시안 음식
	가격	2인 기준 약 1,500 INR
	메뉴	핫 칠리 포테이토, 누들, 스시, 딤섬 등
	식당명	던킨 도너츠
	종류	디저트 류
	가격	2인 기준 약 500 INR
	메뉴	디저트, 도넛, 카페
	식당명	스타벅스
	종류	카페
	가격	2인 기준 약 750 INR
	메뉴	카페

□ 아그라 지역 (델리에서 편도 4시간 소요)

○ Taj Mahal(타즈 마할)

- 아그라 신시가지 동쪽 넓은 야무나 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타즈 마할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1631년 무굴제국의 왕 샤 자한이 부인을 위해 짓기 시작하여 22년 만인 1653년에 완공
- 가로 300m, 세로 530m의 당당한 정문은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정문의 아치를 빠져나가면 넓은 마당에 수로 (水路)를 둔 전형적인 무굴 양식의 정원과 분수가 펼쳐짐

샤 자한은 17년동안 14명의 아이를 낳고,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1629년 사망한 부인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추모하여 이 아름다운 묘를 만듦. 이란 출신의 우스타드 이샤(Ustad Isa)에 의해 설계가 완성되었고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훌륭한 장인들 2만여 명이 차출되어 왔으며, 건축자재의 운반을 위해 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사용되었다고 함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요일 휴장)

○ Agra Fort(아그라 성)

-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아그라 성은 1565년 악바르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손자인 샤 자한에 의해 부분적인 추가 공사가 완성 됨. 악바르 시대 때, 이 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였으나 손자 샤 자한은 내부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추가로 만들어 자신의 궁으로 사용
- 성벽은 2.5km 길이로 성을 감싸고 있으며, 그 밖은 10m 넓이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음(일출에서 일몰까지)

○ Pathepur Sikri(승리의 도시)

-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인 파테푸르 시크리는 아그라에서 자이뿌르 방향으로 37 Km 떨어진 곳으로, 1573년의 구자라트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이름 붙인 도시
- 이 도시는 악바르대제가 성자(세이크 살림 치스티)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성자가 사는 지역인 이곳에 대규모 성을 건설, 16년 동안 무굴제국의 수도를

삼았으나, 그 후 Lahore를 거쳐 Agra를 수도로 정한 후에는 무굴제국 당시에도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도 및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황폐화되어, 일명 유령의 도시로 불림 (일출에서 일몰까지)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